



▶ **‘물의 천국’ 잘츠부르크의 여름 액티비티**
 잘츠부르크주관광청이 여름철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여행자를 위해 강과 호수,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소개했다.
 잘츠부르크시 남쪽 플라차우 지역은 ‘수상 액티비티의 천국’으로 불린다. 폭포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캐녀닝, 호수에서의 카이트서핑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손과 발에 오리발을 끼고 튜브에 앉아 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리버버그(Riverbug)는 가장 스릴 넘치는 체험이다.
 첼암제에선 9월 첫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 밤 8시에 가이드와 함께 햇불을 들고 계곡을 탐험하는 ‘첼암제 카프룬 협곡의 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길이 340m의 나무 구조물을 따라 걷은 후 참가자들과 캠프파이어를 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알프스로 둘러싸인 알펜테름 가슈타인 인공호수에서는 호수와 산의 풍광을 감상하며 온천수로 피로를 풀 수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홍콩 디즈니랜드, ‘토이스토리와 픽사 친구들의 여름 축제’ 개최**

홍콩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9월 1일까지 ‘토이스토리와 픽사 친구들의 여름 축제’를 진행한다.
 우선 방문객은 ‘픽사 워터 스트리트 파티’에서 최대 높이 7m까지 솟는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며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에 출연하는 라이트이어·우디·보핍, ‘업’(Up)에 등장하는 칼·러셀·더그, ‘인사이드 아웃’의 조이와 새드니스, ‘인크레더블’의 미스터 앤 미세스 인크레더블 등 디즈니와 픽사 친구를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포키 블랙큐런트 젤리 초콜릿 무스, 리사 스페셜티 음료 등 ‘토이스토리 4’ 기념 메뉴를 맛보고, DIY 요리 워크숍에선 버터 초콜릿 쿠키나 픽사 볼 초콜릿 트뤼프 케이크 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280여 가지의 여름 한정 기념품과 110여개의 토이스토리 주제 상품도 준비된다.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는 디즈니 픽사 주제의 물놀이 액티비티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서머 솔저 트레이닝 클래스’에 참가하면 장난감 군인 훈련을 받은 후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처럼 구출 임무를 체험할 수 있다. 호텔 정원에서는 ‘서머 버블 파티’도 열린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아울러 한국인 고객을 위한 패키지도 출시했다. 왕복항공권, 홍콩 디즈니랜드 리조트 호텔 1박과 시내 호텔 1박, 디즈니랜드 입장권 1장으로 구성된 2박 3일 상품으로, 가격은 성인 기준 52만9천원부터다.
www.hongkongdisneyland.com/hk/



▶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한 체코 여행지**

체코관광청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방문하면 좋을 곳을 소개했다.
 수도 프라하의 햄리스 장난감 백화점에서는 ‘체코 리퍼블릭’을 주제로 하는 레고 전시회가 상시 열리고 있다. 총 2.9t의 레고블록으로 재현한 프라하 천문시계, 홀루보카 성, 예슈테트 TV 타워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 5대 동물원 중 하나인 프라하 동물원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을 관찰하고, 산책로를 거닐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체스키크루모프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리프노에는 북할늘이공원이 킹덤 오브 더 포레스트 편 파크가 있다. 이곳에는 대형 트램펄린, 나무 마을, 작은 집과 요새, 미끄럼틀 등이 갖춰져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관람하고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도 프라하와 체스키크루모프에 있다. 마지막으로 남부 모라비아의 히포클럽 레드체니에서는 가이드와 함께 조랑말 농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터키에 숨겨진 해돋이·해넘이 명소**

터키문화관광부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즐길 수 있는 터키의 해돋이·해넘이 명소를 소개한다.
 해돋이와 해넘이를 색다르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넴루트(Nemrut, 해발 2,150m)산을 추천한다. 정상에는 기원전 번성했던 소국 콤아게네의 왕 안티오쿠스 1세의 거대한 무덤, 최대 9m 높이의 거대 신상 5개가 있다. 안티오쿠스 1세의 두상을 비롯해 빛에 따라 변하는 석상들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경관은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고요 속에서 일몰을 만끽하고 싶다면 에게해 북쪽에 있는 보즈자다(Bozcaada)섬이 제격이다.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장과 온화한 바다가 펼쳐진다. 일몰 감상 포인트는 폴렌테 페네리다. 특히, 해안을 따라 늘어난 풍력발전기가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 **벨기에 숲속에 공중 자전거 길 등장**

벨기에 플랑드르에 있는 울창한 숲속의 높은 곳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색적인 자전거 길이 개통했다.
 이 자전거 길은 브뤼셀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림버그의 아름다운 숲이자 사이클링 명소인 보스랜드에 조성됐다.
 자전거 길은 직경 약 100m의 원형으로 높이 10m, 총 길이 700m다. 폭 3m의 일방통행 길로 두 명이 나란히 달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길 양옆으로 안전대가 설치돼 있다.
 벨기에 플랑드르 관광청은 “림버그에는 호수 한가운대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길도 있다”며 “내년에 세 번째 이색 자전거 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위스 알프스 산악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

스위스 알프스 산악에서 8월 16~17일 철인 3종 경기인 ‘인페르노’(www.inferno.ch)가 개최된다.
 ‘인페르노’는 매년 쉴트호른과 뮌렌 사이 알프스 산악에서 열리는 대회로, 참가자들은 수영, 산악자전거(또는 도로자전거), 달리기 등으로 순위를 겨룬다. 고도차가 5천500m에 달하는 곳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수영 구간은 툰 호수에서 오버호펜 성까지 3.1km다. 자전거 종목은 도로자전거(97km)와 산악자전거(30km)로 나뉘어 진행된다. 달리기 구간은 슈테헬베르크~라우터브룬넨~뮌렌~쉴트호른을 잇는 오르막 경사로 총 25km다. 대회는 연령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전체 남녀 각 5등까지는 상금을 준다. 상금은 1등 1천500스위스프랑(약 177만원), 2등 1천스위스프랑(약 118만원), 3등 750스위스프랑(약 88만원), 4등 500스위스프랑(약 59만원), 5등 250스위스프랑(약 29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가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8월 9일까지며 참가비는 530스위스프랑(약 63만원)이다. 참가비에는 슈테헬베르크~쉴트호른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2장, 16일과 17일 뮌렌에서 열리는 파스타 파티 참가 2인, 대회 전후 슈테헬베르크~툰 구간 2인 버스 이용료가 포함된다.
 메인 대회 이외에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펀(Fun) 3종 경기가 16일 오후 진행된다.



✈️
항공·렌터카



▲ 하와이안항공, '페이스랩 비행경로 최적화 시스템' 도입

하와이안항공이 기체 성능과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종실에 제공하는 페이스랩 비행경로 최적화 시스템(Pacelab Flight Profile Optimizer, 이하 페이스랩 FPO)을 도입했다. 페이스랩 FPO는 위성통신을 활용해 풍향, 풍속, 난기류, 기체 성능 정보를 운항 승무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등의 하와이안항공 직항 노선에 운항하는 에어버스 A330 전 기종에 도입됐다. 하와이안항공 조종사들은 페이스랩 FPO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가장 빠르고 연료 효율성이 높은 비행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하와이안항공은 페이스랩 FPO의 도입으로 연간 약 130만 갤런(490만ℓ)의 연료 소비량을 줄이고 1만2천파운드(540만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와이안항공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와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분기에 B787-9 기종 10대를 도입한다. 이 기종은 구형 항공기 대비 20% 개선된 연료 효율성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효율 친환경 항공기다.



▲ 터키항공,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운항

터키항공이 2023년까지 최대 30대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도입한다. 터키항공은 지난해 보잉 787-9 드림라이너의 확정 구매 25건과 옵션 구매 5건을 주문한 바 있다. 보잉 787-9은 '드림라이너'라는 이름이 붙은 첨단 기종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결합해 '꿈의 항공기'로 불린다. 최대 1천140km를 비행할 수 있다. 터키항공 드림라이너는 270석의 일반석, 30석의 비즈니스석으로 구성된다. 넓은 실내와 넉넉한 객실 위 수납공간이 구비돼 있고, 큰 창문과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창문 덮개를 달았다. 또 최신식 여과 시스템과 공기압, 습도 조절 기능은 승객들이 건조함을 덜 느끼고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엔진과 실내 인테리어, 시스템과 장비는 모두 진동 절연 기능을 갖춰 더욱더 조용한 기내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일케르 아이즈 터키항공 회장은 "새로운 항공기의 진보된 기술과 효율성, 승객 중심 객실 디자인 등은 승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항공의 첫 787-9 드림라이너는 지난 7월 8일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터키의 지중해 도시 안탈리아로 출발했다. 또 8월 말까지 6대가 추가 운항한다.

▼ 델타항공, 스카이트یم 재예약 시스템 도입

델타항공이 스카이트임(SkyTeam) 제휴사 고객의 여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사 예약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스카이트임 재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델타항공 직원이 스카이트임 제휴사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요청을 처음 접수한 직원이 스카이트임 재예약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내에 모든 스카이트임 제휴사의 항공권을 직접 재예약하고 재발행할 수 있다. 델타항공은 스카이트임 18개 제휴사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70여 공항을 통한 여행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해 런던 히스로공항, 멕시코시티공항, 파리 샤를 드골공항,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등 총 100개 공항에 도입된다.



▶ 에티하드항공, 취항지 중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A380 투입

에티하드항공이 취항 국가 중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천~아부다비 구간에 A380을 투입했다. 주 7회 매일 운항하는 A380은 전 세계 최초 객실 형태의 더 레지던스 캐빈, 9개의 퍼스트 아파트먼트, 70개의 비즈니스 스튜디오, 405개의 이코노미석을 갖추고 있다. 더 레지던스는 거실, 침실, 샤워실로 이뤄져 있다. 이런 공간 구성은 프라이빗 제트기를 제외하면 전 세계 상업항공기 중 에티하드항공의 A380밖에 없다. 전담 버틀러와 셰프, VIP 컨시어지팀을 배치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퍼스트 아파트먼트는 약 2m 길이의 완전 평면 침대로 전환되는 좌석과 마사지 기능이 있는 리클라이닝 라운지 의자를 갖추고 있다. 미니바가 있고 샤워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스튜디오는 기존 비즈니스석보다 약 20%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평면 침대로 전환되는 좌석, 18인치 터치스크린 TV가 설치돼 있다. 이코노미 405석 중에는 좌석 간격이 36인치에 달하는 이코노미 스페이스 80석이 설치돼 있다. 모든 이코노미석에는 조절 가능한 머리 받침대와 등받이가 달려 있다. 에티하드항공은 체크인부터 기내를 거쳐 착륙 이후까지 승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인 '현명한 선택'(Choose well)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 루프트한자, 기내 원격 의료 시스템 탑재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 모든 장거리 항공편에 모바일 심전도(ECG) 시스템인 카디오시큐(CardioSecur)를 탑재했다. 카디오시큐는 소형 ECG 시스템으로 무게가 50g에 불과하다. 승무원의 기내 모바일 장치(아이패드 미니)에 있는 앱과 심전도 케이블, 네 개의 일회용 전극이 달린 작은 가방으로 구성된다. 탑승객이 심장 질환을 호소하면 승무원은 이 시스템과 앱을 통해 심전도(12 lead ECG)를 측정하고 환자의 나이, 체중, 성별,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입력한 후 지상에 있는 ISOS(International SOS)의 의료 핫라인으로 전송한다. ISOS는 심전도를 평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무원에게 전화로 조언한다. 이후 비행기 회항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탑승객 가운데 의사가 있는 경우, 앱의 전문가 모드를 사용해 심장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루프트한자는 '기내 의료진'(Doctor on Board)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의를 포함해 기내 탑승 중인 의료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문 의료진 1만1천명이 등록돼 있다. 루프트한자는 의료 여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탑승객이 비행 중 의료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면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인 중 선택해 동반할 수 있다. 집중 치료 수송, 들것 사전 예약, 환자 이송 서비스, 비행 스트레스 안정을 위한 의료용 산소 제공, 별도의 의료 센터 운영 등도 하고 있다.

▶ 아메리칸항공, 위성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아메리칸항공이 항공기에서 위성 기반 광대역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메리칸항공은 자사가 보유한 700대 이상의 모든 항공기에서 항공업계 최고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위성 기반 광대역 와이파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탑승객은 위성 기반 와이파이를 통해 비디오 스트리밍,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고객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해도 연결 상태와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공기에서 게이트로 이동 중에도 연결 상태가 유지된다. 탑승객은 개인 휴대장치로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 쇼핑, 라이브 TV 시청,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 뮤직과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5천만 곡 이상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도 즐길 수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또 고객이 기내에서 휴대용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주요 항공기의 모든 좌석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형 여객기에는 핸드프리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태블릿 홀더도 도입한다.





포시즌스, 장기 숙박 패키지

'프라이빗 리트릿' 론칭

포시즌스호텔앤드리조트는 장기 숙박 패키지인 '프라이빗 리트릿'을 선보인다.

프라이빗 리트릿은 전 세계 21곳에 있는 포시즌스 레지던스나 빌라에 장기 숙박하며 호텔급 서비스를 즐기는 패키지다.

이용객은 침대 개수, 주방시설, 수영장 유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호텔 투숙객과 똑같이 바, 피트니스 센터,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수영장이나 객실에서 칵테일 파티를 열거나 셰프가 준비한 식사를 즐기고 요가 레슨을 받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끽할 수 있다.

포시즌스호텔앤드리조트는 프라이빗 리트릿 프로그램을 7일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할인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포시즌스는 '프라이빗 리트릿' 추천 지역으로 세이셸, 일본 고토, 태국 꼬사무이, 코스타리카, 캐나다 휘슬러의 블랙콤 마운틴을 꼽았다.

www.fourseasons.com



호텔 세이지우드 흥천, '베케이션 박스 패키지' 출시

호텔 세이지우드 흥천이 블루마운틴 골프클럽과 함께 1박 2일 '베케이션 박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잭 니클라우스의 구상으로 설계된 블루마운틴 골프클럽에서 1박 2일간 36홀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로열 스위트와 프레스티지 스위트 객실을 이용한다. 주중 로열 스위트 객실 이용 시 가격은 50만원부터다.

호텔 세이지우드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고급 리조트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혜택을 모두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033-439-1234



더 플라자, 스타 셰프 음식 선보인다

더 플라자는 한국 최고 스타 셰프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미술랑가이드 서울판 1스타를 획득한 신창호 셰프의 모던 한식 레스토랑 '주옥'을 비롯해 미술랑 1스타 레스토랑 '스와니에'의 오너 셰프인 이준 셰프가 선보이는 유려피안 파인 다이닝 '디어 와일드'.



새로운 프렌치 요리를 선보이는 이영라 셰프의 샴페인 바 '르 카바레 시떼',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1에서 준우승한 박준우 셰프가 선보이는 디저트 카페 & 와인바 '더라운지' 등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의 요리를 통해 미식 여행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메리어트의 '쿨 서머 브리즈'

여의도 메리어트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의 여름휴가를 위해 '쿨 서머 브리즈 패키지'를 8월 말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는 원 베드룸 스위트·원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투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중 1박, 파크 카페 조식 3인(성인 2인, 소인 1인, 36개월 미만 1인 조식 무료), 피트니스 센터·실내 수영장·사우나 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유모차에 부착할 수 있는 핸드형 선풍기 1개,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텀밴드 2개를 제공한다.

가격은 원 베드룸 스위트가 25만5천원부터, 원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27만5천원부터, 투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36만5천원부터(이상 봉사료와 세금 별도)다.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은 총 103개의 스위트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객실에 주방시설,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있다.



콘래드 서울, 도심 속 힐링 공간 '버티고' 재개장

콘래드 서울의 루프톱 바 '버티고'가 시티 포레스트라는 콘셉트로 재단장했다. 콘래드 서울 9층에 있는 새 버티고는 경쾌한 분위기의 아웃도어와 세련된 인도로 이루어져 구성돼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

아웃도어는 푸른 잔디와 탁 트인 개방감이 인상적이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인도어는 자연 채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심 전경을 날씨가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

버티고의 또 다른 공간은 버티고 가든이다. 애플민트, 로즈메리, 초콜릿 민트, 페퍼민트 등을 심어 놓은 허브 가든이다.

뉴 버티고에서는 점심, 브런치, 저녁을 칵테일·수제 맥주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대표 메뉴로는 구운 돼지 허벅을 곁들인 소고기 갈비, 저온 조리한 삼겹살, 탄두리 치킨 등의 그릴 메뉴와 푸아그리가 들어간 버거, 양 갈비 등이 있다.



파크하얏트서울, 나를 위한 여름휴가 패키지

파크하얏트서울이 여름 패키지 '서머 앳 더 파크'를 8월 말까지 선보인다.

호텔 측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나의 휴식과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패키지라고 밝혔다.

패키지는 코너스톤 조식 뷔페, 프리미엄 바이닐 바 '더 팀버 하우스' 혹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코너스톤'에서의 생맥주 두 잔과 스낵,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이용, 레스토랑 25% 할인, 스파 20% 할인 등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일반 객실 기준 34만5천원부터(세금 별도)다. 하얏트 또는 호텔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하면 웰컴 스낵을 제공한다.

